기다리는 아픔

시, 불교를 만나다

㉚ 몸과 마음의 거리 :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지만, 예전에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있었다. 약속 시간에 30분 정도는 늦게 와도 너그럽게 봐주는 문화다. 그러다 보니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오곤 했다. 특히 단체로 움직일 때는 더욱 그랬다. 오래전 문화재 답사를 갔을 때의 일이다. 오전 여덟 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사람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온 어느 학인이 왜 출발하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것이었다. 30분 늦게 온 사람에 비하면 1시간을 기다린 셈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 일로 인해 조금은 찜찜한 기분으로 답사를 떠나게 된 것이 못내 아쉬웠다.

물론 그 학인이 화를 낸 것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 상태를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학인의 마음속에는 8시에 출발한다는 내용이 입력돼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과 마음 사이에 넓은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과거의 약속과 현재 상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한다. 기다림에 지친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8시에 오기로 했으면 정각에 와야지. 왜 안 오느냐고!"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마음이 오롯이 담긴 작품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지 않고 있다. 자꾸만 시선이 문 쪽을 향하지만, 그녀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럴 때도 마음이 먼저 움직여 오지 않는 이를 향해 간다. 마음이 앞서면 몸도 따라가기 마련이다. 아마 수없이 의자에서 일어섰을 것이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나 해서 말이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앞서는 것일까?

황지우는 198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해체시를 이야기할 때면 늘 등장하는 인물이다. 해체시란 글자 그대로 기존의 시 형식을 해체, 또는 파괴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시 안에 특수문자나 도표 등이 등장하기도 한다. 시인이 주로 활동하던 80년대는 군사 독재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였다. 황지우는 대학 시절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학생 운동을 하고 투옥되기도 했는데, 이런 경험이 쌓여서인지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독재에 저항하거나 이를 풍자하는 시를 썼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구속돼 대학원에서 제적당하기도 했다. 오늘 소개하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처럼 서정적인 작품도 많은 편이다.

시인은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연혁(沿革)'이란 작품이 당선되면서 등단한다. 이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대학에서 학문의 길을 걷게 된다. 그는 한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와 〈나는 너다〉, 〈게눈 속의 연꽃〉,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 등의 시집과 시론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가 있으며, 〈오월의 신부〉라는 희곡집을 내기도 했다. 김수영문학상을 비롯해 현대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오늘의 시 '너를 기다리는 동안'은 1991년 출간한 〈게눈 속의 연꽃〉에 실린 작품이다. 출판사는 "그의 시는 진흙탕 속에서 화엄의 꽃이 피듯이 현실의 세계와 화엄의 세계를 끊임없이 왕복하는 과정 속에 어느 순간 그 두 세계의 경계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출가해서 스님이 된 형의 영향 때문인지 화엄과 같은 불교적 색채도 그의 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서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고 있을까?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기다리며 애태우는 마음 담은 서정시
괴로움 초래 몸과 마음의 간극 보여
불자, 몸 · 마음 하나 되도록 정진해야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 내가 미리 가 / 너를 기다리는 동안 /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 너였다가 /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 다시 문이 닫힌다 / 사랑하는 이여 /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앞서가는 마음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여우는 예고 없이 아무 때나 찾아오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매일 같은 시각에 오는 게 좋을 거야. 만일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마침내 4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돼. 그런데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예의가 중요한 거라고."

여우는 좋아하는 사람이 약속된 시각에 찾아오면, 그전부터 기다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갑자기 찾아오는 깜짝 이벤트보다 약속을 정하면 기쁨이 훨씬 클 것이라는 뜻이다. 아들, 딸이 어머님께 언제 찾아뵌다고 전화하면 설레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무엇을 먹일까 즐겁게 고민하는 것과 비슷하다. 〈어린 왕자〉를 다시 읽으면서 특히 공감이 많이 된 부분이다.

이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약속과 달리 상대가 오지 않는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왜 안 오는 것인지 궁금해서 몸이 가만있질 못한다. 부모라면 집 밖에 나가 차가 오는지 계속 기다릴 것이다. 통화마저 되지 않는다면, 그 걱정은 배가 된다. 누군가를 기다려본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시인 역시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 않아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다. 혹시 오지 않을까 봐 마음이 몹시 불안하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며,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에도 가슴이 쿵쿵거린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자꾸만 문을 향하고 있다. 시인의 말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 너였다가 /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 다시 문이 닫힌다." 그녀이길 바라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몸은 여기 있지만, 너무 천천히 오고 있는 그녀를 향해 마음이 그쪽으로 먼저 달려간다. 몸과 마음의 거리가 느껴지는 순간이다.

"눈 오는 날엔 /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 마음과 마음끼리 만난다 / 그래서 눈 오는 날엔 / 사람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많다. // 눈 오는 날엔 그래서 /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다."

이정하 시인의 시 '눈 오는 날'이다. 몸과 마음의 거리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 소개한다. 눈 오는 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그린 작품이다. 도저히 참기 힘들면, 몸이 가만있질 못하고 마음을 따라 그녀가 있는 곳으로 향하기도 한다. 사랑에 빠진 이들의 숙명이다. 마침, 눈도 내리고 있지 않은가. 우연인 척 가장해서 그녀가 사는 곳으로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눈 내리는 날이면 마음 아픈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거리를 느끼면서 살아간다. 앞에서 소개한 버스가 출발하지 않아 화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다. 몸은 차 안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전법 차원에서 이 지역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을 불교대학에 초대해서 일요법회도 보고 맛있는 갈비를 사준 적이 있다. 법문 시간에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몸은 법당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저 멀리 갈빗집에 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조금 일찍 마치고 몸과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었다.

몸과 마음의 거리가 멀면 우리들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리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염불이나 명상, 절 등은 이를 줄이기 위한 수행이다. 마음공부가 잘 되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사랑에 빠진 경우는 예외다. 그건 마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니 말이다.

원로 불교학자 강건기 교수는 어느 특강에서 "몸 있는 곳에 마음 있게 하라"는 말을 남겼다. 몸과 마음이 분리된 삶은 괴로우므로 간극을 줄여야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도록 정진하는 것이 불자의 삶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일일시호일

신장 절반 손상된 이른둥이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34주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양쪽 신장 절반 이상 손상…신장 이식 필요
장기 치료 필요 상황에 병원비 1500만 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